

이태원 클럽발 슈퍼감염...광주·전남 비상

코로나 19 집단감염 전국 86명...광주 93명·전남 60명 검사 유흥시설 긴급 행정명령 등 대책...자진신고·진단검사 촉구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방역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추적에 집중하는 한편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공공시설 개방 연기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선 원어민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무더기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사일정 차질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이날 낮 12시까지 전국에서 8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1명,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제주 각 1명이다.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3112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한 전국 자치단체들은 빠른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위해 방문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자로 분류된 총 93명(자진신고 84명, 시스템 등록 9명)을 검사한 결과, 다행히 4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8명은 검사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자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지난달 29일 밤부터 5월 8일

새벽까지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깡, 킨, 트렁크, 더파우너, 소호, 힙'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관찰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 위반 후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방역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추가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4월 28일~5월 5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그 주변 업소 방문자가 모두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5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인근 클럽 등 업소 방문자 55명 중 49명도 음성 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의 가족 등 동거인에 대해서 현재 7명의 검사가 이뤄졌는데 모두 음성이다. 다만 음성판정 후 양성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클럽을 직접 방문한 5명은 자가격리되고, 나머지는 능동감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태원클럽발 환자 확산을 막

으려고 클럽 방문자 자진 신고를 당부하는 긴급 재난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917명으로 확진자 접촉자 29명, 해외입국자 888명이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이 가운데 12명

이 완치됐고 4명은 격리 치료 중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확진자는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 16번 환자(여수)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등교 개학 앞두고...

광주·전남 원어민 교사·교직원 등 이태원·홍대 업소 방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주변 업소를 방문한 광주·전남 지역 원어민 교사 등 교직원이 10명에 달해 지역 교육 당국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發) 클럽 감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광주지역 원어민 강사는 이날까지 모두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명은 학교 원어민 교사이고, 학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는 3명이다. 광주에는 원어민 교사는 일선 학교에 126명, 학원에 23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원어민교사 36명과 교직원 15명 등 총 51명이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방문했고, 이들 원어민 교사 가운데 최소 2명은 이태원 클럽을 찾았던 것

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에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만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등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문자가 50명이 넘는 전남에서는 전체 방문자 중 20명에 대한 1차 진단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검사가 진행중이거나 의뢰된 상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방문자 모두 출근을 금지하고 자가격리토록 했고, 추가 방문자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전일까지 75명에 달하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교 개학을 앞두고 비상사태다. 각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집단감염 여파로 개학이 1주일씩 연기된 11일 오전 나주시 산포면 로컬팜 직원들이 광주지역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가정에 공급할 농산물 가족 꾸러미를 포장하고 있다. 꾸러미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장기간 가정 돌봄을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기재부, 신입 예산실장에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임명

기획재정부는 500조 원을 넘어서는 초슈퍼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신입예산실장(1급)에 안도걸(55·사진)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신 출신인 안 실장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행정안전예산심의관·복지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재정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이다. 예산실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04년 장병완 예산실장 이후 16년 만이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합리적이고 겸손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이 활발해 정부 내에서는 물론 정계와 언론계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마당발로 통한다. /최권일 기자 cki@

"5·18은 역사상 가장 큰 시련...정당한 권위 받아야"

80년 당시 천주교광주대교구장 재임 윤공희 대주교

"5·18은 우리 민족이 역사 안에서 겪은 가장 큰 시련이었다.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정당하게 권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80년 5·18당시 제7대 천주교광주대교구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광주시민들을 지키는데 앞장섰던 윤공희(빅토리노·사진) 대주교는 5·18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최근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윤 대주교는 70년 동안 사제로 살아오면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80년 5·18에 대한 장면을 꼽았다. 그는 "총칼을 앞세워 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던 계엄군의 모습을 사제이자 한 인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상황은 너무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윤 대주교는 인터뷰에서 신학교 생활,

6·25한국전쟁 당시 지학순 주교와 함께 월남하게 된 과정, 한국전쟁 당시 중군신부로 사목하면서 느꼈던 인간적인 소호, 로마 유학생할, 광주대교구장 재임 시절 등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그는 80년 5월 19일 집무실 너머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던 시민을 보고도 당장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 "40년이 흐른 지금도 한없이 부끄럽다"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감도 당한 사람을 비켜 지나가는 사제가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가시질 않는다"고 말을 흐렸다.

또한 그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동기를 알 수가 없다"며 "그들은 어떤 사실적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윤 대주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빌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통 중에라도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믿음과 희망, 사랑으로 살아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로 사제수품 70주년을 맞은 윤 대주교는 1950년 3월 20일 사제품을 받았으며 지난 1973년 10월 25일 광주대교구장에 착좌한 뒤, 2000년 11월 30일 퇴임할 때까지 27년 동안 광주대교구를 이끌며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전일빌딩245' 시민 역사문화공간으로

다목적 강당에서 개관 기념식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전일빌딩245'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개관 기념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전일빌딩245 개관은 2016년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한지 4년4개월 만이다. 개관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제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 장휘국 시교육감, 소영민 31사단장,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우 5·18 기념재단 이사장, 5·18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복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5월 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뜻을 옮기게 기억하

고 계승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사업"이라면서 "전일빌딩245가 광주다움을 알리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 광주의 아픔을 극복한 숭고한 오월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역사문화공간, 그리고 광주시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문화 창조공간으로 각각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관식에서 전일빌딩의 '헬기 사격 총탄 흔적'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실장과 리모델링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박홍근 건축사, 공사관계자 등 '전일빌딩245' 사업 완료와 개관에 공헌한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일빌딩245는 지하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244㎡ 규모로, 리모델링을 위해 국비 120억, 시비 331억 총 451억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h3>자본감소공고</h3> <p>당회사는 2020년 05월 11일 총사원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원 중 금8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20,000,000원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8,000좌를 출자자들의 동의를 얻어 입의 소각하기로 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p> <p>2020년 05월 12일 유한회사 선진지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50-354 성동빌딩 7층 대표이사모 지연</p>	<h3>자본감소공고</h3> <p>당회사는 2020년 05월 11일 총사원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원 중 금8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20,000,000원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8,000좌를 출자자들의 동의를 얻어 입의 소각하기로 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p> <p>2020년 05월 12일 유한회사 영진물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0 대표이사모 지연</p>	<h3>입찰정정공고</h3> <p>2020년 5월 11일 광주일보에 게재한 광주광역시생태리조트 입찰공고 중 마, 물품내역 : 공기청정기 구매설치를 TV구매설치로 정정공고합니다.</p> <p>2020년 5월 12일 광주광역시생태리조트주인지원협의회 위원장</p>	<h3>상속한정승인공고</h3> <p>· 피상속인: 망 노진규(551014-XXXXXX) · 최후주속: 목포시 수강로4번길 32-3 (보령동1가) · 등록기준지: 목포시 수강로4번길 32-1 피상속인 망 노진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 5월 163호 신청하여 2020년 4월 2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0년 5월 12일 · 상속인: 1. 김현숙(531017-XXXXXX) 2. 노아영(830708-XXXXXX) 3. 노원석(870716-XXXXXX) 4. 노경석(891019-XXXXXX) 상속인 1, 2, 3, 4의 주소: 목포시 경미로 25(삼영동) · 신고기간: 2020. 5. 12 ~ 2020. 7. 21 · 채권신고소: 상속인 1. 김현숙의 주소</p>
<h3>자본감소공고</h3> <p>당회사는 2020년 05월 11일 총사원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원 중 금8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20,000,000원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8,000좌를 출자자들의 동의를 얻어 입의 소각하기로 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p> <p>2020년 05월 12일 유한회사 한성특수회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영산로 3083 이사 정현동</p>	<h3>자본감소공고</h3> <p>당회사는 2020년 05월 11일 총사원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원 중 금8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20,000,000원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8,000좌를 출자자들의 동의를 얻어 입의 소각하기로 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p> <p>2020년 05월 12일 유한회사 조은로지스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93-1(삼영동) 이사 정현동</p>	<h3>산행안내</h3> <p>유카메 광주점착산악회 ☎010 8612 4504, 010 8612 3177</p> <p>5월16일(토) ▲광주점착산악회 5월16일(토) 전북 남원 평의산(920m) 매봉(712m) 천황산행, 분선동 롯데수려야 07:10 전월동 시작제마 트윌 07:20 영주체육관 주차장 임규 07:30 한국전쟁기념관 0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입</p> <p>5월17일(일) ▲광주산악회 5월17일(일) 경남 산청 황매산, 모이리포도 06:30, 금호지구대 06:35, 무주사 06:40, 시청건너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들</p>	<p>유카메 광주점착산악회 ☎010 3603 7718</p> <p>5월20일(수) ▲광주점착산악회 5월20일(수) 경남 통영 사량도 칠현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 밴크라이 06:00, 교직원체육회관 06:10, 예술회관후문 06:20, 각하동 현대물류양 06:30 *다들</p> <p>유카메 광주점착산악회 ☎010 8612 4504, 010 8612 3177</p>